

# 김 교육감 “교원수급 정책 문제있다”

### 교원 1인당 학생수, 지역·학교별 다른 상황 고려 “OECD 평균치만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은폐” 지적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교원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정부 계획대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및 과목선택제를 전면도입하려면 교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

수급은 그대로 놔두고 1교사 다과목 수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다면서 “의욕적인 교사들은 연수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 발상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범대학에서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지난 23일 열린 제



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에서 발표된 ‘학생수급’에 따른 초등교원 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과 비교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만 놓고 봐도 전주·군산·익산의 과밀학교는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인원이었다”면서 “지역별 학교별로 각각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교원 1인당 학생수 평균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밀집도·밀폐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됐다. 그러려면 학급수를 좀 더 늘리고 학교수를 소규모로 분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교육감들은 이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7일 대학본부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증식’을 가졌다.

## 전주비전대·한국국토정보공사 ‘원-원’

###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7일 대학본부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증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김경주/이근상 지적토목학과 교수와 최규명 전북지역본부장, 채규오 지적사업처장, 김원준 공간정보사업처장 및 관계자 등 약 20여명 참석했다.

이날 기증받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측량업무시스템’인 랜디고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업무용 전문 프로그램이며, 전주비전대는 전국의 대학 중에 가장 많은 80개 피, 현금 약 4억 2백만원 상당이다.

최규명 본부장은 “취업명문대학인 전주비전대학교와 기증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전주비전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LX국토정보 공사에 채용돼 공사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크다”며 “오늘 소프트웨어 기증식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최신의 기술을 담은 소프트웨어로 현장실습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측량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기증을 ‘헤드런드’는 측면보다는 전주비전대학교에 최적화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재들을 공사가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할 것

이다”며, “향후 홍순직 총장을 비롯한 전주비전대학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총장은 “지적토목학과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용 S/W를 기증해줘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증식이 시시하는 바가 크기에, 현장실습교육에서 랜디고를 적극 활용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 홈커밍데이’ 함께해요

### 전북교육청, 29일 도내 고교 졸업생 대상 ‘소통의 시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전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 홈커밍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혁신고, 일반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북교육을 통해 성장한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한 현재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자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 SNS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황재영 씨(광주대 3학년)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 발표마당에서는 5인 5색, 나에게 전북교육이

란’을 주제로 심천미 씨(공주대 1학년), 김태홍 씨(한국기술교육대 3학년), 문세희 씨(한국교원대 1학년), 한효빈 씨(캐논코리아 근무), 이지현 씨(전북대 2학년) 등이 발표에 나선다.

2부 나눔마당에서는 교사음악동아리 ‘세시봉’의 축하공연, 참가자들의 현재 고민을 나누는 공감토크, 터놓고 말해요, 김승환 교육감의 희망메시지가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자기주도적인 공부 덕분에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성숙한 태도, 사회의식, 팀워크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며 “졸업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이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W체험형 특강 진로놀이터를 진행한다.

## SW체험형 특강 진로놀이터 ‘색다른 재미’

###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 도내 초·중·고 20개교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이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W체험형 특강 진로놀이터를 진행한다.

SW가치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SW 진로놀이터는 교육과 실습이 재미있게 조화를 이루는 체험형 교육방식으로 SW에 대한 논리력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SW교육으로 이루어진

다. 올해 말까지 총 20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전주인후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창의적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퍼즐 킥 퍼핑, 블록코딩 배우기 및 제어하기, 코딩을 활용한 미션 수행하기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은 SW로봇으로 미션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아쉬워하면서 2학기에도 프로그램 체험을 희망하기도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전북교육문화회관 ‘독서교실’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여름 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대상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회관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놀면 뭐하니?’라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다양한 북투 활동으로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책을 통해 알아보고, 스스로 놀이를 개발하며 자신감과 창의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알찬 방학생활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다.

또한 이번 여름 독서교실은 정교아 티스트 안전화 강사의 ‘엄사이클링 팝업북 ‘책으로 놀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환경복원공학연구실,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 환경복원공학연구실(연구책임자 백기태 교수)은 제1회 건강한 연구실에 선정돼 받은 상금 1천만 원을 학과 발전을 위해 내놓았다.

백기태 교수(환경공학과)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27일 대학 본부를 찾아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연구실’은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연구실 관리와 연구문화 및 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선정의 영예를 안은 환경복원공학 연구실은 9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돼 토양과 지하수, 수질, 폐기물 등 여러 환경매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 연구원들의 주도적 연구 수행을 통해 최근 3년 간 1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SCI 저널 50편, 국내 학술지 5편, 학술대회 117회(상상 12회), 특허 등록 5건, 기술이전 1건 등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14명의 졸업생 중 10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올렸다. /장은성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